4 월 첫째 주

제목: 예수님을 찬송하던 그 입으로
본문: 마태복음 21 장 1-11 절
찬송가 : 새 141 장(통 132 장) 호산나 호산나
새 135 장(통 133 장) 어제께나 오늘이나
살아 계신 주

여는 질문 내 입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 그리고 기도의 도구인지, 아니면 거짓과 불평 불만의 도구인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했습니다(고전 6:19). 그러므로 우리 몸으로 행해지는 모든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 입에서 나오는 언어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이 되어야 할 내 입에서 불평과 불만과 거짓 그리고 남을 향한 저주가 나온다면 과연 그것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일까요? 오직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이끄심을 사모하며 입술의 권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사람을 더럽힌다고 했습니다(마 15:11). 하나의 입에서 찬양과 감사와 기도, 그리고 거짓과 불평과 불만이 함께 나온다면, 그것은 하나의 입으로 식사와 배설을 함께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입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풍겨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모든 언행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 계심과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본문 속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던 종려주일과 함께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믿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며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복자가 입성할 때 타는 말이 아닌 사람들의 짐을 지는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심으로써, 자신이 인간의 죄의 멍에를 대신 지고 고난을 겪으시다가 결국 죽임을 당할 고난의 종이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았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 예수님의 앞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이것은 왕을 영접하는 관례적 행위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영접하였던 그날로부터 불과 5 일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호산나' 찬양으로 맞으며 왕으로 영접하였던 자들, 그리고 5 일 후 금요일에 예수님을 때리고 조롱하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던 자들, 이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호산나로 환영하던 그 입으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라고 외쳤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왕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 손으로 예수님의 뺨을 때리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시간, 그 자리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어떤 사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죄 없이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다는 것을 담대히 외치며 십자가의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결국 나도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던 무리 중의 하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자신들의 기대가 깨어지자 그 예수님을 당장에 저주하고 죽이려 드는 유대인들과, 입만 열면 예수님 찾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 모습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도 그 무리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히도록 만든 나의 죄에 대한 회개없이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입을 찬양과 기도의 도구로, 내 몸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삼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내 안에 계신 살아 계신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의 회개의 삶이어야 합니다. 회개는 말이 아닌 행동입니다. 거듭나기 전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은 죄인이었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난 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를 내 언행과 삶을 통해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 예수님을 향한 유대인들의 언행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8-9 절, 27:22-23)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들의 옷을 앞 길에 깔아 드리며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그러나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던 자들이 불과 5 일 후 예수님을 저주하며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죽이고 있었습니다.

2. 예수님을 저주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였던 유대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보고 들었던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로 즉각적인 행동을 보여 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해방과 유대인들이 다스리는 왕국 건설을 꿈꾸었던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위한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유대인들의 죄를 질책하셨으며, 또한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구원이 임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결국 자신들의 세속적 기대와 영광을 채워줄 메시아가 될 수 없음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했던 기대와 소망이 원망과 저주로 바뀌게 되어 버렸습니다. 믿음과 신앙의 본질은 내 기대가 아닌 예수님의 기대이여야 합니다.

삶 속으로

1. 예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 모습과 죄악된 언행을 행하는 내 모습 중 어느 것이 진정한 나의 모습인지 고백해 봅시다.

우리의 삶과 언행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인간의 원죄로 인한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죄악의 유혹과 욕심과 탐욕이 아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연약한 인간으로서 죄의 문제를 스스로 완전히 극복할 수는 없지만 죄를 절제하고 다스리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죄와 타협하고 그 죄를 합리화 한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언행을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며 죄악을 멀리하기 위해 철저히 자신을 절제하고 다스린다면 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일 것입니다.

2.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세속적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깨어진 유대인들은 즉시 돌변하여 예수님을 죽이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도 삶에도 감사와 불평 불만이 언제나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형통할 때는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만, 고난과 시련의 풍파 가운데 놓이는 순간 그 감사와 찬양이 예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어 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가 어떠한 행동을 취할지를 정확하게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박았습니까? 바로 내 자신입니다. 나의 욕심과 탐욕, 불평과 원망의 죄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21:9 (개역개정)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녀와의 나눔

내 입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말과 죄악의 말이 같이 나온 적이 있나요?

4 월 둘째 주

제목: 걸림돌인가, 디딤돌인가?
본문: 마태복음 27 장 57-66 절
찬송가 : 새 149 장(통 147 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새 215 장(통 354 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새 10 장(통 34 장) 전능왕 오셔서

여는 질문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위험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 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습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나는 무엇을 내려 놓고 포기할 수 있습니까?
당시 주류 유대 사회에서 유대교를 배교하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다는 것은 자신이 누리던 모든 신분과 지위, 그리고 권리와 특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요셉의 행위는 '예수님을 위한 모든 것의 내려놓음' 이었습니다. 신앙의 본질은 '받음'이 아니라 '드림'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 내려 놓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본문 속으로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자신의 무덤에 안치한 것은 스스로 유대교의 배교자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리던 특권과 권리를 모두 박탈당하고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위험을 감수하고서 그는 기꺼이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반면에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철저히 부인하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을 내는 것을 막기 위해 경비병으로 하여금 무덤을 지키게 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부활을 예비하고 준비한 자였다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부활의 영광을 가로 막는 자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며 죄를 합리화하는 강팍하고 완악한 우리의 심령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누워 계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죄인을 것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주일예배, 수요예배, 기도회 등으로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며 최선을 다해 교회 안에서의 봉사에 힘씁니다. 그러나 교회의 그런 역동성이 교회 밖 현실에 대한 참여와 지혜로운 분별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각종 봉사를 통해 시대의 징조를 분별하고 성찰하여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기여한다면 한국교회는 사회변화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지금 교회와 믿는 자들이 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조롱거리와 뒷담화 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대를 역행하고 있다고 걱정을 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해 주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 주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교회가 저러면 안되는 거 아니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안되는 거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끄는 선구자였던 교회가 어느덧 이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생각해 봅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신이 가정의 걸림돌, 직장의 걸림돌, 이웃의 걸림돌, 교회의 걸림돌이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로 인해서 같이 천국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나와 함께 있다가는 나 때문에 나와 같이 지옥에 가도록 만드는 사람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인도해야 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 버렸듯이, 오늘날 교회와 믿는 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을 막아버리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러한 모습을 위해 예수님께서 그 험한 고난과 시련을 겪으시고 죽으셨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 신앙과 삶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지탱해 나가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다같이 기도하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것은 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자신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57 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원으로서 누리던 특권과 권리보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축복'이라는 권리와 특권보다 '섬김과 헌신'이라는 책임과 의무를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2. 유대 지도자들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가로 막는 걸림돌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할까요?(62-64 절)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제시하신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유대 민족의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과, 구원 받는 자의 인격과 성품, 그리고 천국에 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내 삶과 언행을 통해 증거하는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삶 속으로

1. 다른 사람을 위해, 아니면 교회를 위해 내 이익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 이익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기쁨과 교회의 덕 중, 무엇이 삶의 최우선적 본질인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사랑은 이웃과 형제 사랑의 실천으로 증거되어야 합니다 (마 22:37-40).

2. 나는 다른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이끄는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걸림돌입니까?

내 눈을 통해 내 자신을 주관적으로 판단하며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고 나 정도면 믿음 좋은거야" 합리화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 그리고 말씀에 비추어 내 자신의 모습을 영적으로, 객관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지독하다는 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읽는 성경책이고,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도신경(신앙고백)이며, 세상이 마음에 새기는 설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삶과 언행이 전도를 취한 최고의 그리고 최선의 도구입니다.

암송 구절

마태복음 27:57(개역개정)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녀와의 나눔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4 월 세째 주

제목: 하나님 앞에 큰 사람
본문: 사무엘하 3 장 12-21 절
찬송가 : 새 354 장(통 394 장) 주를 앙모하는 자
새 358 장(통 400 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새 549 장(통 431) 내 주여 뜻대로

여는 질문 이스라엘 왕국의 통일을 위해 다윗은 거국적이고 미래지향적 안목으로 적군의 수장이었던 아브넬을 포용하는 위대한 지도자적 역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큰 사람으로 여기실까요?
내 의지와 판단, 내 가치관과 주장, 그리고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즉 하나님이 '큰 사람'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내 삶의 본질은 '내 이익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판단한 후,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맞는지 고백해 봅시다.

본문 속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이 혼란과 분쟁을 끝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으로 번영하기를 소망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인정받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과 권세로 위대한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으로서 백성들 앞에서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고, 자신의 믿음에 의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업적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룬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으로써 이룬 업적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과 주장보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자기 삶의 본질로 여겼습니다. 다윗을 이끌어 가는 것은 인간적 욕심과 야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앞에서는 원수를 향한 자신의 감정과 의지까지도 철저히 절제하였고,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모든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자신을 먼저 포기했던 다윗과는 달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신앙적 문제 앞에서 제일 먼저 포기하는 것이 신앙일 때가 많습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생겨서 '시간'을 조정하고 빼야 할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신앙 생활에 관계된 시간을 줄입니다. 교회에 두 번 가던 것을 한번으로 줄이고 한번 가던 것을

아예 가지 않으며, 교회에서 봉사하던 것을 다 내려 놓아 버리기도 합니다. 신앙 생활에 '방학이라는 개념을 스스로 도입해 버립니다. 또한 돈을 줄여야 할 상황이 되면 헌금과 같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관련된 돈과 비용을 제일 먼저 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신앙의 관념을 생각해 봅시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인가를 포기하거나 줄여야 할 때, 제일 먼저 신앙에 관련된 것을 포기하고 줄이는 것일까요? 초대 교회 시절에, 그리고 한국의 일제 식민지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목숨 걸고 신앙 생활하며 생명을 포기하는 한이 있어도 믿음은 포기하지 않았는데, 과연 지금과 같은 신앙의 세태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과연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 서있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 앞에 큰 사람, 즉 선민으로 선택 받았으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지난 후, 불순종의 행위로 인해 스스로 작은 자가 되어 심판 받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게 되자 하나님은 그들을 대신할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큰 사람으로 선택된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자로 성숙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살아 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눈만 의식하고 사람의 말에만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큰 사람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대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 속으로

1. 다윗이 자신을 대적하였던 사울 가문을 원수로 여기지 않고 화합과 포용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13-14 절)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였으나, 미갈의 아버지는 다윗의 원수가 되었고 그녀 또한 다윗을 버리고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미갈을 증오와 미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여전히 자신이 사랑해 주어야 할 아내로 여겼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사랑하는 아내로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을 대적하였던 사울 가문조차도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였습니다.

2.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언제나 다윗과 함께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8:11-12)

다윗은 주변 나라에서 바치는 조공과 전쟁에서 쟁취한 전리품을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영광과 권세가 다

하나님으로 주어진 것임을 인정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다윗의 믿음이 그가 누리는 은혜와 권세의 본질이었습니다.

삶 속으로

1.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내 감정과 의지보다 중요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나는 내 감정과 의지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인지 생각해 봅시다.

2.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의지를 끝까지 고집하며 행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에 대한 최종적 결정 기준은 내 생각과 의지와 판단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내 생각과 의지대로 판단하고 결정했다면, 그 결정과 판단의 본질은 결국 인간적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일 것입니다. 인간적 욕심과 이기심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암송 구절

사무엘하 3:18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하고 싶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나요?
2. 내가 기쁘고 좋은 일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 어떤 일을 먼저 하겠어요?

4 월 네째 주

제목: 하나님 앞에서
본문: 사무엘하 11 장 1-13 절
찬송가 : 새 521 장(통 253 장) 구원으로 인도하는
새 516 장(통 265 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새 524 장(통 313)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여는 질문 계속되는 승리와 번영으로 인한 다윗의 교만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유발하였습니다. 우리는 내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주변의 시선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의롭고 보이고, 정직하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과 사람의 시선 중 무엇을 더 의식하는 사람입니까?

본문 속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국력은 강해지고 국토는 넓어졌으며 재물은 넘치도록 쌓여만 갔습니다. 모든 것이 다윗과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지만, 다윗은 이러한 번영과 성공이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업적이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결국 이와 같은 교만이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무엇을 해도 다 용납된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행하였고, 자기가 행한 죄에 대해서도 사람의 눈만 속이려 하면서 모든 것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다윗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절정기는 일단락되고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람데오' (Coram Deo), 라틴어로 'Coram' 은 '앞에'라는 뜻이고, 'Deo'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 두 단어가 합해져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 됩니다. 코람데오는 바울과 같은 사도들과 칼빈과 같은 모든 종교 개혁자들의 생의 좌우명이이자 가치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사도들의 믿음과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표는 당연히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서도 하나님앞에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보다는 '사람 앞에서(Coram Hominibus)'사는 세속적 모습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나 권위를 가진 사람 앞에 줄 서서 손 비비는 세상 풍속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목사는 어떻게든 큰 교회 목사가 되려고 하고 교단에서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더 큰 힘과 권위가 생기기 때문이지요. 그러기에 평신도들도 어떻게든 장로 되려고 하고 중요한 임원 자리를 차지하려고 기를 쓰고, 원하는 직분을 받지 못하면 교회에 남아 분쟁을 일으키거나 아예 교회를 떠나 버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세상의 인정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어떻게 해서든 목사에게라도 잘 보이고 충성해서 원하는 직분을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닌 사람에게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양산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 앞에 서거나 제단 위에 서면 조금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제단 위에 올라 갈 때 신발을 신지 못하고 벗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이지요. 그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의 십자가도 한낱 나무 조각일 뿐이며 제단도 교회 건물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교회 밖을 나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Coram Deo)'가 아닌 '사람 앞에서 (Coram Hominibus)' 살아가며 온갖 부끄러운 죄를 다 짓고 다니면서, 교회 와서는 십자가 앞에서, 제단 위에서 거룩하게 행동을 한들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와 제단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일 뿐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목회자에 대한 인간 숭배와 교회라는 건물과 관념에 대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지고 인간은 점점 더 높아지는 인간 숭배와 우상 숭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되돌아 가야 합니다. 코람데오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옳으냐, 옳지 않으냐',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오직 이것만이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속으로

1. 신정 왕국을 건설한 위대한 왕 다윗의 타락과 범죄는 무엇으로 인해 야기되었습니까?(1 절)

당시 전쟁은 왕들이 직접 참전하여 전투를 지휘하였습니다. 다윗도 왕으로서 수많은 전장을 누렸던 위대한 군인이자 장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다윗은 영적 안일과 나태함에 젖어 들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당연한 결과로 여기게 되었고,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만큼 했다는 영적 교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영적 나태와 영적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었으며,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신은 전쟁에 참전하지 않음으로써 밧세바와의 범죄가 잉태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종으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더 이상 보지 못했고, 백성들 앞에서 가장 높은 왕으로서의 모습에 스스로 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사람 앞에 서 있는 자는 하나님께 범죄할 수 밖에 없습니다.

2. 범죄의 어떠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하신 것일까요?(8, 13, 15 절)

다윗은 밧세바의 임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전장에 있던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황을 보고하라는 명목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 아내와 시간을 보낸 후 전장으로 복귀하라고 했습니다. 충신 우리아는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을 생각하며 자신만 편하게 아내와 쉴 수 없었기에 집으로 가지 않았고, 이에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술 취하면 아내 생각에 집으로 갈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이 계략마저 실패하자 우리아를 가장 치열한 전투의 선두에 세워 죽게 만들라는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들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냄으로써 결국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사람의 양심을 마비시켜 죄악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들어 더 큰 죄를 짓게 만듭니다. 또한 한가지 죄를 덮기 위해 또다른 죄를 연쇄적으로 범하도록 이끕니다. 거짓말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해야 하는 원리입니다. 죄악은 모양이라도 흉내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삶 속으로

1.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마음 자세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양, 품위, 절제, 상식, 그리고 패션과 화장까지, 다 사람의 눈과 시선을 의식하는 인간 본성의 부산물입니다. 모두가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것입니다. 법과 규범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처벌을 두려워하는 인간 의식의 본성이 도덕과 윤리라는 말로 드러나는 행위입니다. 사람의 시선과 세상의 처벌을 그렇게 의식하고 두려워하는 인간이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입니다. 사람은 24 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나를 살필 수 없으며 내 생각과 마음까지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살피시고 계시며(시 121:4), 내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다 아시는 분입니다(시 139:1-4). 우리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영적 자각이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근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 앞으로 어떠한 일을 하던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모든 언행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까?

하루 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하는 크고 작은 모든 일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내려야 하는 판단과 결정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를 최종적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암송 구절

사무엘하 11:11 (개역개정)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 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 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하는 모든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다 알고 지켜 보신다는 것을 믿나요?

4 월 다섯째 주

제목: 내 인생의 주권
본문: 사무엘하 23 장 1-7 절
찬송가 : 새 90 장(통 98)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새 302 장(통 408 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는 질문 내 인생과 하루 하루의 삶 가운데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내 생각과 의지였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 경험과 지식, 내 자신의 의지와 주장,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권면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성령의 음성에서 찾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속으로

다윗은 통치 말기에 지난 과거를 회상하며 자신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섭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그 역시 죄인의 한계를 벗어나지는 못했지만,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인정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이 죄인된 인간을 의인으로 이끌어 가는 본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장과 성숙이라는 공사의 과정을 거치며 완성되어 갑니다. 성숙은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완성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장의 과정입니다. 성숙은 과정입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도록 주권을 내어 드리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기 위해서는 내 안을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내 생각, 의지, 주장, 판단, 욕심을 다 비워 버리고 빈방으로 하나님을 모셔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와 섭리대로 일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셨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완전히 비워야 합니다. 여기 저기에 딱지를 딱 붙여 놓고 '내 생각은 건드리지 마세요, 내 가치관은 관여하지 마세요, 자식 문제는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이것은 내가 여전히 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천명하는 것입니다. 집을 공사해서 완전히 새로 짓고자 한다면 공사 담당자에게 집을 완전히 비워 주어야 합니다. 건물을 새로

짓는 중에 이런 저런 문제와 분쟁이 생겨서 공사가 중단된 건물들을 보면, 참 흉물스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기 위해 여기 저기 고치려고 하실 때 내가 개입해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이건 안되고 저것도 안되고... 결국 공사가 중단 되어 버려 흉물로 남아버린 건물의 모습이 나의 영적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착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공사를 시작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은 칭의에서 성화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화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는 그 믿음에 의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칭의함을 받은 우리의 실제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이와 같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완전한 자로 변화시켜서 천국에 이르는 영화로운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천국의 영화를 누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개조 시키는 공사의 과정이 바로 우리들 믿는 자들의 삶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공사에 내 의지와 생각이 반영되어서는 안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내 인생의 공사에 대한 모든 권리를 내어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로운 인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자가 지금 즉시 해야 할 것은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다윗의 삶을 이끌어 가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23:2)

다윗의 삶과 모든 언행의 기준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였습니다. 다윗의 형통한 삶은 언제나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하며 성령이 이끄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던 순종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질 가시나무는 누구를, 어떤 삶의 모습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6-7 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의지대로 행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자를 가시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시나무를 제거하는 수단으로 언급된 철과 창자루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게 될 엄격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만 언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저주도 언약입니다. 인간의 행위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시나무를 다른 곳에서 찾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시나무일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릴 때 가시나무의 껍질을 벗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삶 속으로

1.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은, 내 삶의 본질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일까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 드리지 않고 여전히 내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신앙의 본질은 '드림' 이 아니라 '받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우선시하는 기도에 하나님은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2. 내 언행,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과 신념을 통해 드러나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내 언행, 내 삶의 모습, 내 가치관과 신념은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나의 영광과 만족과 성공과 번영을 최고의 가치로 추구한다면 나는 내 자신이 주인인 사람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이름과 교회의 덕을 먼저 생각한다면 바로 이것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증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욕심에 기반한 세상적 번영과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말로 합리화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장한 탐욕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부와 번영이 아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고 있는가'의 여부입니다. 내 자신이 나의 주인 된 사람의 특징이 바로 세속적 부와 번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며 그러한 탐욕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암송 구절

사무엘하 23:2 (개역개정)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심이여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자녀와의 나눔

1.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나요?
2.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생겼는지 이야기 해보세요.